

## 韓國 農村自然部落의 綠地體系에 關한 研究

文 石 基

清州大學校 理工大學 造景學科 教授

A Study on the Open Space System in Korean Rural Settlement.

Moon, Seok Ki

Prof., Dept. of Landscapae Architecture, Chongju Univ.

### SUMMARY

The concept of 'Open Space' is conceived to be very valuable subject of interest in developing modern settlement system.

In Korea, many new and old residential sites have been developed or renewed to fulfil the housing demands. And such trends seem to continue for the time being. What is more, the requirments for more comfortable residential environments, that is deeply concerned with 'Open Space', increase gradually.

As a basis for designing more efficient residential environments to fit Korean morden life style, self-grown, traditional and agricultural villages are studied. This study is concentrated on the Open Space System with its socio-cultural and physical backgrounds.

For this, data and materials are some widely collected and are analyzed focused on the systems and structures of 'Open Space'. Some results from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 ;

1. It is assumed that the number of houses per village is around 60, and that its area reaches to the radius of 3-4km.

2. 'POONGSU' is a generally adopted theory based on natural elements like mountians, waters, and orientations when locating villages and composing their spatial structures. As a result of this, the basic structures of villages and Open Space are defined.

3. Circulation system is integrated to the hierachyal order system ; that is, Passing Road → Entry Road → Central Road → Disperse and Access Road.

4. The natural and agricultural land uses are overlapped with diverse outdoor activities—religious services, play and recreation, relaxation, etc—without any physical modification.

---

1987年 7月 1日 접수된 논문임

1986年度 문교부 학술연구 조성비 연구논문임.

5. At each villages, several artificial and spot-like green facilities are found. And distinctive functions, meanings, and localities are given to each of them. On that, they become a visual and psychological centers of each village.

6. In addition to its basic function of circulation, Central Road takes the sense of place for outdoor activities. Because of this character, it plays an important role of activating the village life and binding the various Open Space elements.

## 1. 緒 論

### 1. 研究의 目的

과거의 모든 文化的 產物에는 그것이 生成되었던 時代와 地方의 自然物理的 特徵과 함께 社會文化的 屬性과 가치관등이 複合되어 表出되게 마련이다. 人間의 定住單位인 部落도 역시 文化的 行爲의 結果이며 傳統部落에는 定住行爲와 關聯된 모든 것이 계재되어 있게 된다.

現代의 文化가 그 뿌리를 과거의 그것에 두고 있음을 생각할 때 定住空間의 樣式도 傳統성이 바탕이 되어 現代의 變形, 適應되어야 함이 당연하다. 우리나라의 農村自然部落은 이와같은 傳統성이 比較的 잘 保存되면서 이어져 온 우리민족의 定住空間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都市와는 달리 成長의 過程에서 現時代의 作爲성이 最小限의 水準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住宅은 폐쇄성을 지닌 家族固有의 독립된 住居空間이다. 반면 部落은 보다 社會的인, 共同體의 屬性을 지니 部落單位의 定住空間에서는 共同的 空間이 갖는 意味가 부각되게 된다. 道路를 비롯한 各種의 外部空間, 즉 綠地에 있어서 그것의 物理的 特性和 함께 社會的 가치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近代化의 過程에서 식민시대를 겪었고 해방이후에도 서구의 문물이 무비판적으로 수용됨으로써 定住樣式의 傳統性和 獨自성이 確立되지 못한 채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個別住居는 물론 大單位 定住規模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있어 定住形式과 綠地開發의 標本設定이 시급한 실정이다.

本 研究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韓國의 農村自然部落을 대상으로 綠地를 中心으로한 定住體系를 分析하여 그곳에 包容된 綠地의 類型과 物理的 樣式, 그 配分과 構成, 文化的 背景등을 파악함으로써 結果의 傳統의 綠地樣式의 現代의 응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 2. 研究의 內容과 方法

本 研究에서는 韓國農村自然部落의 綠地體系를 파악함에 있어서 特定의 部落에서 發見되는 特殊한 현상보다는 一般의 部落에서 共通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 屬性들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研究의 대상이나 內容이 比較的 包括的일 수밖에 없다.

研究는 部落의 성립배경과 空間立地의 側面으로부터 시작되어 定住特性和 綠地體系에 이르기까지 段階別로 關心의 폭을 좁혀가면서 수행되었는 바 각각의 段階는 上位 또는 下位의 內容과 有機的 關聯성을 갖는다.

먼저 部落의 空間立地의 側面은 주로 地形의 特性에 關心을 두고 標本地域의 立地類型을 分類하였으며 그 結果를 傳統의 立地理論과 대비하였다. 한편 定住體系는 體系構成因子중에서도 특히 土地利用과 道路體系를 주로 관심을 두고 고찰하였는데 이는 그들이 綠地構造와 不可分의 關係에 있는 중요한 因子들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綠地體系는 部落의 空間立地和 定住體系의 맥락하에서 綠地의 空間的 配列과 物理的 特徵을 이해함은 물론 이것을 部落의 共同體의 行態와 關聯하여 解析하고자 하였다.

또한 分析對象部落은 다음과 같이 分類할 수 있다.

첫째; 忠北地域의 標本部落으로 面單位에서 傳統성이 保存되고 있다고 추천된 107個 部落을 對象으로 주로 空間立地의 特性을 分析.

둘째; 과거 유사연구의 對象部落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결과를 다시 해석하고 既 作成된 배치도를 活用하여 定住特性和 綠地體系를 分析.

셋째; 踏査 및 實測調査를 수행한 部落으로서 위의 資料들과 함께 諸般 分析和 해석에 共通적으로 活用

더불어 具體的인 研究方法으로는 文獻調査, 圖面分析(배치도, 1/5,000~1/50,000地形圖), 設問調査, Image Map分析등의 방법을 함께 병행하였다.

## II. 定住의 背景

### 1. '農村自然部落'과 '綠地'

人間이 일정한 거주지에 定住하게된 것은 農業의 生活에 定着한 이후로서(崔基哲, 1978) 이것이 集團化하여 村落을 形成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村落은 古代 社會로부터 形成되어오고 있으나 現存하는 것과 같은 傳統部落의 構造와 形態는 李朝時代에 와서 비롯된 것이며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차의 붕괴와 재편을 거쳐 오면서도(문병집, 1973) 李朝以來의 傳統性이 比較的 充實히 유지되어 오고 있다.

'部落'은 村落, 聚落등과 意味에 큰 區分이 없이 사용되는 用語이며, '人間이 群集하여 集團生活을 營爲하는 特定場所로서의 생활무대'를 指稱한다.(吳洪哲, 1980) 또한 部落의 순수한 우리말인 '마을'은 원래 部落공동체의 名稱으로 '무리(群)'의 뜻을 갖는다.(문병집, 1973) 이렇게 볼 때 部落은 場所的, 物理的 屬性과 集團組織으로서의 社會構造的 屬性이 동시에 이해되어야 하는 대상으로서의 當爲性을 갖게 되는 것이다.

'自然'은 저절로 發生된 것, 그리고 스스로의 성장에 맡겨진 것들의 總體이다.(尹明老, 1973) 따라서 農村自然部落은 計劃的, 劃一的方式이 아닌 漸進的 성장의 構成方法에 의해 生成된 部落이다. 따라서 視覺的 不規則性 속에 非可視的 秩序가 내재되어 있으며, 생태적으로나 形態적으로 최대의 平衡과 合理性이 潛在된 生命力이 있는 集團이다.

Gutkind(Laurie, 1975)가 정의한 人間과 自然의 關係에서 보면 현대의 都市는 人間이 自然을 支配하는 '나-그것(I-it)'의 段階에 屬한다. 그러나 점차 綠地의 확보라던가 自然과 조화된 都市의 開發을 통해 人間이 自然에 대해 책임지는 段階로 轉換코자하는 노력의 增大되고 있는 바, 이러한 노력의 實現은 아직 '나-당신(I-thou)'의 段階에 머물러 있는 農村自然部落에서의 人間-自然의 關係를 이해함으로써 비롯될 수 있는 것이다.

'綠地'를 字義로 해석한다면 물론 그린스페이스(Green Space)이며 나무나 풀과 같은 植物이 存在하는 物理的空間이다. 그러나 이것을 環境分析, 또는 環境計劃의 맥락에서 보면 대상공간 의 規模나 屬性에 따라 多樣한 概念이 適用될 수 있어 物理, 行態, 心理的으로 '開放된 空間(Open Space)'으로까지 擴大된다. 또한 綠地는 人間의 開發行爲에 對應되는 '自然'의 象徴의 表現이기도 하여 高密度의 開發地域에서는 하나의 自然要素(물이나 돌, 새소리등)까지도 '綠'의

범주에 包含시키기도 한다.

이렇게 볼 때, 綠地의 現代의 概念은 '綠地(Green Space)'라는 絶對的 屬性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周邊環境에 대한 相對的 自然性과 機能까지도 고려하여 設定되어야 할 必要性을 갖는다.

다시 말해서 農村自然部落은 그곳에서 生活하여 온 사람들에 의해 '승인된 價値'가 具體化되어 나타난 하나의 文化事象인 것이다.(尹明老, 1973) 따라서 定住體系는 물론 綠地를 包含한 部落의 總體的 環境(社會的 環境과 物理的 環境을 포함함)은 그것이 自然 그 자체이건 인위적인 것이건, 文化的 選好와 文化的 潛在力을 實現하는 人間 共同體가 自然環境과 상호작용하여 생기는 結果로 理解되어야 한다.

### 2) 農村自然部落의 一般의 特徵과 成立背景

部落의 類型이나 性格을 區分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地理的 位置, 就業狀態, 家屋의 소밀상태, 기하학적형태, 성립과정등의 指標를 사용한다.(吳洪哲, 1980) 이는 人間의 定住環境에 대한 理解의 方法으로서 部落의 發達(Process), 形態(Pattern), 立地(Location), 및 分布(Distribution), 機能(Function)과 같이 多面的 接近이 要求되고 있어서이다.(吳洪哲, 1980)

우리나라의 部落을 위의 指標에 따라 分類하면 平地村, 農村, 塊村, 集村, 自然型의 聚落特性을 나타내는 경우가 大多數를 차지하고 있어(吳洪哲, 1980) '農村自然部落'이라는 명칭은 곧 우리나라 부락이 지닌 전형적인 속성들을 내포한다.

部落의 規模에 관하여, 1930년대의 조사에 의하면 全國적으로 10~30호의 部落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같은 현상은 平野立地의 部落만을 대상으로 하여도 동일하여 部落의 立地와 規模는 큰 關係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朝鮮總督府, 1934)

반면 本 研究에서 標本調査한 忠北地域의 農村自然部落에서는 30~60호의 규모가 훨씬 많아, 標本의 地域間 誤差를 어느 정도 감안하더라도, 그동안 部落의 規模가 全般的으로 擴大되어 왔음이 유추된다.<表 1> 또한 部落의 規模는 당연히 可用耕地의 面積이나 部落의 世력과 관련되므로 대개의 部落의 空間의 크기는 60호以內의 自足的 耕地規模로 推定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傳統部落에서 發見되는 特徵으로 同族部落은 대가족제도와 함께 世界的으로 특이한 현상이다.(洪慶姬, 1985) 역시 1930년대의 조사에서(朝鮮總督府, 1934) 全體 약 7만에 달하는 部落중 1,685個의 著名한 同族部落이 파악된 바 있는데 일반의 部落에

비해 그規模가 월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60호以上되는 部落의 比率에 있어서 同族部落은 50%以上에 달하는 것과 달리 一般部落은 14% 內外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同族部落은 주로 고려말과 조선초(500~300년전)에

<表 1> 部落의 規模

구분	규모	150호 이상	100호 ~150호	60호 ~100호	30호 ~60호	10호 ~30호	10호 미만	計 (100%)
全圖(일 반)	1.3%	2.9%	9.8%	27.8%	42.4%	15.9%		8,097호
全圖(경 아)	1.3%	3.3%	9.9%	30.0%	42.2%	13.3%		1,496호
全圖(동 주 부락)	8.9%	14.9%	29.6%	35.3%	11.3%			1,685호
忠北(동 주 부락)	5.9%	11.9%	35.8%	35.1%	11.2%			134호
忠北(농촌자연부락)	0.9%	1.9%	24.8%	64.8%	7.6%			107호

\* 忠清北道의 각 면에서 추천받은 107개 부락을 대상으로 함  
 자료: 朝鮮總督府(1934), 朝鮮의 聚落(前篇), pp.45~47  
 朝鮮總督府(1934), 朝鮮의 聚落(後篇), pp. 349~355

성립되고 있는데 發生의 동기는 매우 多樣하지만(吳洪哲, 1980) ①先墓守護와 祭禮 ②先祖의 後光과 血族意識強化 ③作業의 協同 ④教育施設의 共同利用등을 현실적인 성립요인으로 볼 수 있다.(高承濟, 1977)이 同族部落은 班村인 경우가 많아 儒敎의 鄉約과 村規, 氏族的 結合력이 강한 반면 부락공동체적 祝祭가 미약한 편이며 있더라도 참여도가 낮다.(金漢培, 1981) 이는 대개 民村인 異姓部落이 일반적으로 部落의 근린 통제가 강하고 부락계등이 성행하는 것과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궁극적으로 마을의 外部空間의 사용방식에까지 差異를 나타내는 原因이 되기도 한다.(李揆穆, 1985)

同族部落의 班村的 傾向은 결국 部落의 경제적 세력과 대응되며 위의 부락규모분석에서 部落의 構成戶數가 일반의 部落에 비해 월등히 크게 나타나는 근본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사항이다.

어떠한 하나의 결과론적 文化的 屬性은 또다른 문화의 원인으로 작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背景과 結果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짓기는 어렵다. 그러나 一般的으로 自然環境, 經濟的 興件, 社會的 興件등은 諸般 문화현상의 보다 基本的인 背景要素로 활용 제시되므로 앞의 몇가지 특징과 앞으로 論할 定住 및 綠地體系의 背景으로 援引하더라도 큰 오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農村自然部落의 形成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背景의 要因들은 다음과 같이 要約될 수 있다.

①地形, 氣候

韓半島가 老年期의 산악지형이며 북반구의 溫帶性 氣候帶에 속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背景이다. 局部

적으로는 해당지역의 局地地形과 氣象特性에 영향받게 되는데, 部落의 立地나 규모등 비교적 광역적인 것에서부터 部落內部的 空間構造와 個別家屋의 構成方式에 이르기까지의 포괄적인 環境양식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②經濟的 興件

農耕에서 시작된 協力的 공동체적 特性을 背景으로 한다. 두레, 洞祭, 鄉約등과 같은 社會的 연대제도의 根源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같은 共同組織은 生産力의 發展水準이 미약할수록 뚜렷해지는 傾向이 있다.(문명집, 1973)

③社會的 興件

儒敎思想에 根據를 둔 社會制度和 思考方式이 現存 農村自然部落의 發生과 성장기인 李朝의 社會를 가장 크게 支配하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代表的인 것으로는 조상숭배, 男女有別, 階級적위계성등의 觀念이 있는데 모두 部落과 個別家屋의 物理的 構成方式에까지 影響을 미치고 있다.

④宗教, 信仰

儒敎, 佛敎와 함께 民間信仰은 한국전래의 巫敎로서 그 歷史가 매우 깊다. 이 모든 宗教의 行爲와 思考方式은 空間의 이용패턴에 影響을 미치고 실제로 自然部落의 곳곳에 그 흔적이 남겨져 있다. 기실 宋유역불의 李朝에서도 그 이전적 宗教는 巫佛仙의 재래종교라고 評價되고 있으며 특히 民間에서는 그 傾向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柳東植, 1975)

Ⅲ. 定住體系

1. 傳統立地理論

同族部落의 立地分析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表2> 우리나라 農村自然部落의 大多數가 산록완사면, 또는 배산임류의 地形에 立地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전국동주부락의 지형별 입지분류; 산록 35.7%, 배산임류 16.4%를 통산하면 52.1%가 그와 같은 입지에 해당함, 柳濟憲 1980) 이러한 立地가 農村自然部落의 立地形式을 主導하게 된 것은 地形의 特性, 實用的 必要性, 思想的 背景등과 같은 이유로부터 찾을 수 있으며 이들 요인들은 실제적 적용에 있어서 상호부합됨으로써 그러한 傾向을 가속화 시킨것으로 보인다. 지형특성상 老年期의 山岳地形임 앞에서 言及한 바 있거니와 전국토의 75%가 山地로서 산과 잔구성 山地, 소구릉이 起伏한 준평원, 산간분지가 많아 可能的한 많은 농경지를 확보하기 爲한 手段으로 住居는 자연 산록경사지를 擇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實用的 必要性은 바로 現代의 立地選定理論과 부합 되는 것이며 산록완사면의 部落立地가 갖는 長點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吳洪哲, 1980)

- ①地下水位가 높아 取水에 便利
- ②南向인 경우 日照, 防風, 通風, 保溫 및 冷房效果

<表 2> 著名同族部落의 立地

地勢	山陰	山鹿	背山臨流	溪谷	丘陵	平野	盆地	沿河	臨海	沿道	100% : 호수
全國	3.0	35.7	16.4	5.8	3.2	21.1	2.6	5.8	3.7	2.6	1,685
忠北	0.7	35.8	13.4	9.0	0.7	19.4	6.7	12.7	0	1.5	134

자료 : 朝鮮總督府(1934), 朝鮮의 聚落(後篇), pp. 343~349

- ③排水良好
- ④視野가 開放되어 조망과 방어에 유리
- ⑤홍수, 침수등의 自然災害의 위험성 감소
- ⑥산과 인접하여 燃料取得과 採集에 유리
- ⑦농경지가 周邊에 있어 經濟性 양호
- ⑧道路의 개설(交通)에 便利

自然 또는 實用性에 의해 體得된 이같은 立地觀念은 점차 人間의 心理的 屬性으로 변질되어, 원래 中國으로부터 傳來되었다는 풍수설이 우리나라에서 더욱 확고히 定着되는 結果를 낳고 있다. 이 풍수설은 바로 立地選定의 사상이며 더 나아가 擇里志나 山林經濟, 相宅志와 같은 李朝實學派의 立地, 定住理論으로까지 발전되고 있다.

風水地理說은 陰陽論과 五行說을 기반으로 周易의 체계를 주요한 論理構造로 삼아 追吉避凶을 目的으로 하는 相地技術學인데 山, 水, 方位, 사람의 四者의 組合으로 構成되어 看龍法, 藏風法, 得水法, 定穴法, 坐向論, 刑局論등의 形式原理를 갖고 있다. 陽基, 陽宅과 같은 聚落立地나 住居建築物의 풍수원리는 陰宅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평야에서는 得水法, 山谷에서는 藏風法이 중요시 된다.(崔昌祚, 1984)

實學派의 理論書중에서 李重煥의 擇里志(一名 八域可居志)는 일종의 地理書로서 그 構成과 포함된 內容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評價받는다.(崔昌祚, 1984) 즉 擇里志에서는 人間과 自然과의 關係性을 기반으로 聚落의 最適場所를 發見코자 하여 歷史的, 技術的, 系統的 接近方法이 망라되고 있으며 相對的 立地와 環境知覺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그에 따르면 '살 터'는 地理, 生理, 人心, 山水의 條件이 모두 具備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바, 地理는 곧 풍수학적인 地理로서 水口, 野勢, 山形, 土色, 水理, 朝山朝水로 判別되는 自然條件이며 각각의 因子에 形而上學的 價値가 부여되

<表 3> 擇里志의 立地選定基準

고려인사	立地選定基準	現代의 解析
地 理	水口, 野勢, 山形, 土色, 水理, 朝山朝水	*부지의 物理的 條件을 분석하는 實行基準 *陽宅의 選定異論을 比較的 現實性을 갖도록 要約 *自然에 대한 形而上學的 이치를 現實的 論理와 連結, 解析하려는 노력(水口-경제, 野勢-인재, 보건, 山形-인재, 土色-보건, 水理-경제 朝山朝水-심리)
生 理	*땅이 기름진 곳 *배, 수레, 사람, 물자가 모여들어 물자의 교환이 가능한 곳	*衣食 후에 禮儀가 있다고 하여 經濟적 여건의 중요성 강조 *경제적 여건의 인자로서 토지의 생산성과 교통의 편리성 강조
人 心	*옳은 풍속이 있는 지역 (당쟁의 폐해가 심했던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에서 비롯됨)	*사회적 분위기가 생활의 화목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음을 논함 *後代의 교육적 영향도 고려
山 水	*부근에 유람할 만한 山水가 있는 곳 *산수와 생리가 상충될 때에는 生理를 우선하되 만나질 거리 이내 에 접근 가능한 산수가 있는 곳	*주민의 사회적관계, 이웃관계 강조 *일상생활의 필요조건으로 신의 휴양이 필요함을 인식 *정서, 휴양이 성품형성에 영향

자료 : 李翼成譯 / 李重煥著(1981), 擇里志, 乙酉文化社, pp. 162-266

고 있다. 또한 生理는 經濟的 條件으로서 土地의 비옥도와 交通條件이 判斷基準이 되며 人心은 社會的 條件으로서 지역사회의 風俗을 주요인자로 본다.

마지막으로 山水는 休養의 條件을 말하며 이는 現代의 立地概念에서도 자칫 무시되기 쉬운 항목이다.<表3>

이렇게 볼 때 擇里志는 聚落의 立地條件으로 自然, 經濟, 社會, 休養등의 條件을 보고 있거니와 특히 自然은 그것의 外樣뿐만 아니라 知覺心理學的 側面까지 檢討되고 있는 것이다.

擇里志 外에도 洪萬選의 山林經濟, 또는 柳重臨의 增補山林經濟에는 '人居'條에 定住計劃論에 대한 原則들이 단편적이거나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林園

十六志(相宅地) 또한 山林經濟와 擇里志를 종합정리 하면서 여러가지 다른 서술들을 추가 인용하여 住居立地에서 세부건축계획에 이르기까지 體系의으로 說明하고 있으나 그 理論이나 구성의 골격은 擇里志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金鴻植, 1984)

2. 土地利用과 道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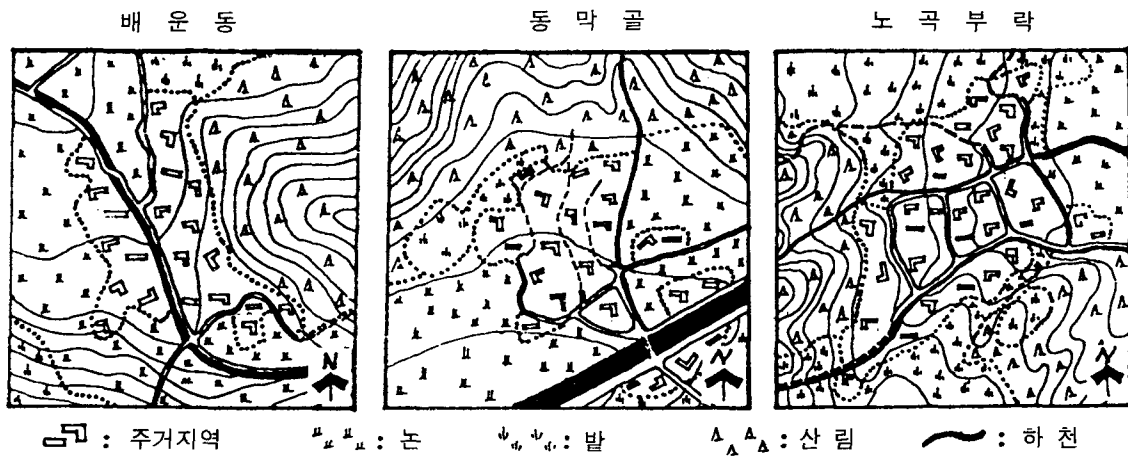
과거에는 道路나 交通手段이 發達하지 않아 物資나 사람의 交流가 활발하지 못하였으므로 '部落'은 最小限의 日常의 生活이 그 안에서 解決되어야 하는 自足的獨立生活空間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部落의 領域은 步行距離나 步行時間과 密接하게 關聯됨으로써 대개 步行圈內에서 設定되고 있으리라 推定할 수가 있다.

이것은 기존의 研究에서도 밝혀지고 있는 바, 괴실 마을에서의 조사에 의하면(金鴻植, 1975) 耕作地는 주거지로부터 500m~750m, 연료림은 750m~1km의 距離에 分布되고 있고, 일반적인 山地村에서는 대부분의

耕作地(98%以上)가 住居地로부터 2km以內에 位置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平地村에 있어서는 山地村에 比하여 단위시간당 步行距離가 늘어난다. 따라서 그 領域이 보다 擴大될 것으로 類推하여 대략 半徑 3~4km를 作業場까지의 限界距離로 볼 수 있을 것인데, 地形構造上 平地村에서는 部落이 立地한 '골'의 크기가 山地村에 比해 커지는 傾向이 있으므로 '골'의 範圍를 部落의 領域으로 본다면 그와같은 傾向이 뒷받침 된다.

農耕을 生活根據로 삼아 土地로부터의 1차산업적 生産에 生計를 依存하는 農村自然部落의 土地利用은 住居地와 田, 畚, 연료림등이 主流를 이룬다. 比較的 傳統의 立地理論에 充實하였던 農村自然部落은 적어도 背山臨水 또는 背山의 立地特性을 보이게 되어 自然 풍수적 '局'의 空間形式에 수렴되거나, 靑龍과 白虎로 둘러싸는 背景의 山林과 前方의 朝山朝水로 위요되는 標準의 單位空間에는 대개의 土地利用이 包含되고 있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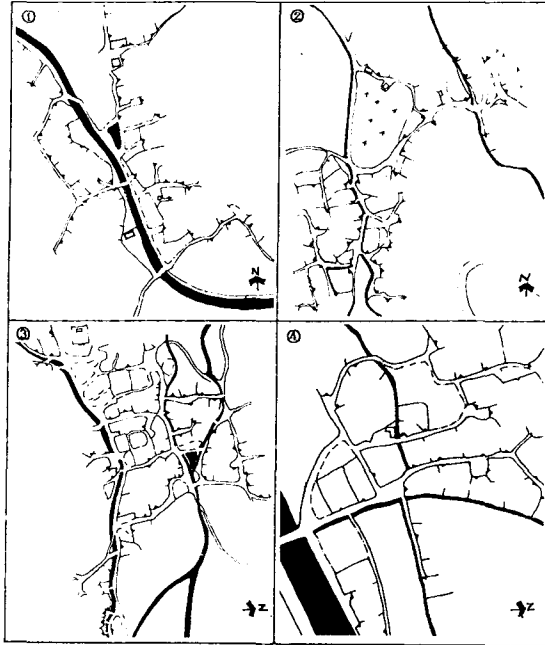
<그림 1> 農村自然部落의 土地利用

道路는 사람과 物資의 通行과 공급로의 機能을 담당하는, 土地利用과 함께 가장 意味있는 定住構成要素이다. 農村自然部落의 道路를 部落의 外部에서 內部로 향하는 체계로 分析하면 通過道路→進入道路→中心道路→分散 및 接近道路의 位階의 秩序體系가 成立한다. 背山이라는 部落立地의 物理的 特性上 部落에의 進入은 대개 前方으로부터 이루어지며 下位道路, 즉 內部로 향할수록 上向하게 된다. 道路는 水系와 중복되거나 平行하는 傾向이 있으며 部落의 여건에 따라서는 위의 道路體系中 어느 것이 생략되거나 機能이 중복되기도 한다.

通過道路는 部落外部道路이며 部落의 日常生活과는 거의 무관하다. 比較的 평탄한 마을 앞들을 지나므로 道路의 起伏이나 굴곡이 완만하다.

여기서 分枝하여 마을로 향하는 進入道路는 逆으로 들(畚)로 나가는 道路이기도 하다. 드물게 通過道路와 겹치기도 하지만(例: 배운동) 대개는 분리되며 象徴物(장승, 입석등)을 세워 마을의 領域을 표시하기도 한다.

進入道路가 部落內部로 연장되면서 그 機能은 中心道路로 轉換된다. 이 部分은 특히 公共性이 강한 '場所'의 屬性을 지녀 部落의 여러가지 公共活動이 展開



<그림 2> 農村自然部落의 道路體系

자료: ①배 운 등; 실측자료  
 ②구암부락; 魚得濟 (1983), 農村自然部落의 變遷에 關한 調査研究, p.15의 도면 재정리  
 ③노곡부락; 李世鎬 (1984), 自然部落의 空間構成에 關한 調査研究, 濟州大學校大學院 석사학위논문, p.26의 도면 재정리  
 ④동 막골; 실측자료

되기도 하는데 部落의 規模가 작으면 下位道路의 分散, 接近의 機能까지 함께 맡는다.

部落의 規模가 커지면 中心道路로 부터 分散 및 接近道路가 分枝되어 新設된다. 부정형의 垡地境界를 따라 開設되므로 比較的 平面굴곡이 심하며 순환형 또는 分枝型의 形態를 보이는데 分枝型의 경우 “끝 막힘 道路”로 끝나지 않으면 뒷 산이나 밭(田)으로 이어지게 된다.

또하나 특기할 만 한것은 ‘短枝型’의 道路가 곳곳에 발달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部落이 어느정도 形成된 後 既存의 垡地가 다시 分割되면서 既存의 道路에 接하지 못하는 垡地가 발생하게 되자 그 부분에서의 接近方式으로 선택되었을 것이라 推定된다.<그림 2>

土地利用과 道路는 相互 不可分의 關係로서 部落의 모든 土地 및 利用空間은 道路를 軸으로 하여 연결, 취합되는 空間機能의 연계성을 갖는다. 즉 通過道路는 논(畚)과, 진입도로는 논이나 밭(田)과 接하며 中心道路와 分散 및 接近道路는 部落內部的 다양한 空間들

을 연결하고 개울과 道路가 接하는 부분에는 빨래터가 형성되며 部落 內部道路가 시작되는 지점에는 정자나무나 공동마당등이 자리잡게 된다.

#### IV. 綠地의 構造와 體系

##### 1. 綠地의 空間的 構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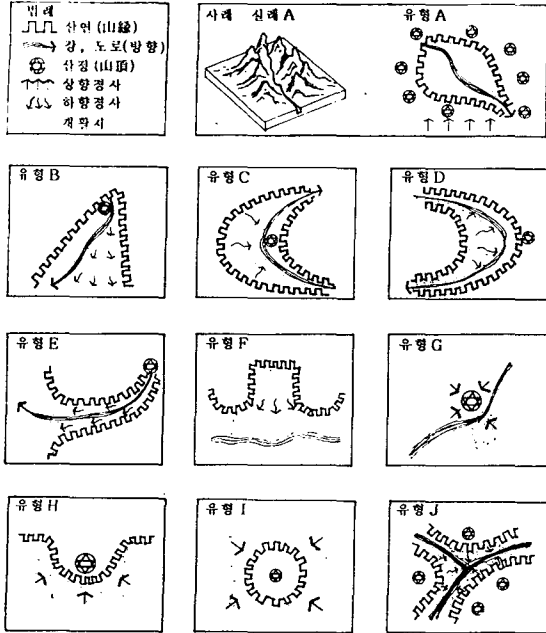
風水의 ‘局’으로써 設定되는 農村自然部落의 領域은 대부분 綠地(Green Space)로 占有되고 있어 部落의 綠地構造는 곧 空間構造와 상응하며 綠地構造의 理解는 空間構造의 解析이 前提되어야 可能하다.

空間의 解析方法으로는 다양한 이론들이 제안된 바 있으나 여기서는 Higuchi(Terry, 1983)의 理論을 元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空間規模나 空間構成因子등이 農村自然部落의 그것과 부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理論은 ‘경계(Boundary)’ ‘촛점(Focus, Center, Goal)’ ‘방향性(Directionality)’ ‘區域(Domain)’이라는 4個의 空間的 屬性들이 조합되어 하나의 ‘HOME’이라는 景觀領域을 構成한다고 보는 것으로 각 空間的 屬性은 ①경계요소; 산맥, 능선, 강, 湖沼 ②촛점요소; 산, 골짜기등 현저한 地形地物 ③방향요소; 도로, 물, 산 등의 上下向의 경사나 시선 ④구역요소; 개활지(취락 또는 경지의 입지) 山, 水, 方位등과 같은 풍수의 구성요소로부터 도출되고 있다. 또한 ‘HOME’이라는 영역은 결국 풍수적 ‘局’과 對應된다고 볼 수 있어 그 理論의 틀이 사실은 풍수적思考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判斷된다.

물론 이 理論에서는 풍수의 四砂(靑龍, 白虎, 朱雀, 玄武) 중 朱雀이나 玄武처럼 比較的 距離가 있는 要素나 구체적인 形態에 대한 고려는 충분치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現代적 空間概念에 의해서 部落의 空間型을 分類할 수 있다는데 意味가 부여될 수 있는 것이다.

分析은 忠北의 107個 標本部落을 대상으로 하였다. 部落의 空間的 範圍는 실체거리 4~5km의 半徑으로 설정하고 1/50,000의 地形圖에서 表現되는 空間要素를 판독하였는데 8個의 基本型에 獨立性이 認定되는 2個의 類型을 追加하여 分類하였다.(D, J는 본 연구에서 추가된 유형임)<그림 3>

分析結果는 外向的 下向傾斜의 谷間地라는 特徵을 보이는 B型의 空間構造가 가장 많았고 이어 A, F, E, J, D, C, H, G, I의 分布順位를 보여주고 있다.<表4> 여기서 下位の I, G, H型은 上位의 型(폐쇄형)과 대조적으로 開放型에 屬하고 있어 空間的 폐쇄성이 農村自然部落의 하나의 特徵的인 現象으로 드러나고 있



<그림 3> 綠地의 空間類型

자료 ; Higuchi, Tadahiko(translated by Charles Terry, 1983), The Visual & Spatial Structure of Landscape, MIT Press.

<表 4> 忠北 農村自然部落의 空間類型別 分布

유형	A	B	C	D	E	F	G	H	I	J	계
분포부락수	16	27	7	8	13	15	4	6	1	10	107
%	15.0	25.2	6.5	7.5	12.1	14.0	3.7	5.6	0.9	9.3	100

으며 그 중에서도 완전폐쇄형(A, C, D, J)보다는 부분폐쇄형(B, E, F)의 部落이 보다 많아 背山이라는 立地型에 接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周邊의 山勢만을 考慮한다면 가장 많은 B형은 풍수의 '龍'의 基本型에 가장 近接하고 있어 역시 風水理論이 部落立地의 選定에 強하게 適用되고 있음이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部落立地의 경사만을 보면 평탄지형은 A, G, H, I의 27개 部落으로 나머지 80개 部落의 경사면 立地와 크게 對照되어 역시 산록완사면이라는 自然部落의 立地特性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大部分의 部落 內部에 大小의 河川이 흐르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같은 內容들을 綜合하면 農村自然部落의 綠地 構造는 결국 谷間型 또는 盆地型의 斜面立地로서 ① 下向的 傾斜의 개활지와 ②그것을 貫통하는 개울 그리고 ③이들을 包括하여 에워싸는 능선으로 構成된

構造에 ④山頂이 視覺的, 心理的 軸점으로서 設定된 空間構造로 說明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風水의 理論은 Higuchi의 空間理論에 비하여 훨씬 精巧하고 세부적인 데까지 미치고 있어 部落의 綠地構造를 훨씬 豊富하게 하여 준다. 즉 풍수이론의 적용은 비단 自然的으로 형성되고 있는 '局'의 選定에만 머무르지 않고 '局'의 不足한 形態를 修正補完하는데 까지 이르고 있는데 그것은 대개 局形의 象徴化를 통하고 있음이 많은 傳統自然部落에서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表5>

<表 5> 象徴化를 통한 綠地의 수정例

部落名	綠地 修正事例
돌문마을	*마을 西쪽에 숲을 造成하여 局形完成 *마을 地形을 半月型으로 생각하여 마을 內부를 역시 半月型으로 비워 달이 차지 못하게 함
남사마을	*강으로 단절된 마을과 主山을 連結시키기 위해 마을後面에 대숲 造成 *左靑龍(또는 牛山)의 꼬리를 연장하기 위해 소나무 밀식
괴실마을	*마을 地形을 손가락에 비유하여 엄지와 검지 사이에 마을을 立地시키고 左靑龍, 右白虎의 末端部(마을 '入口 左右)에 講堂과  국사당(山祭堂) 配置
도래마을	*세마을 사이의 낮은 丘陵에 대나무를 밀식하여 靑龍, 白虎의 補完 및 마을간 차폐
양동마을	*마을의 地形을 勿(깨끗하다는 뜻)字로 보아 능선꼭대기에 집을 짓거나 묘를 쓰지 못함
반송골	*오동리로 命名하고 안산(대실뜸)에 대나무, 오동나무 식재
공동마을	*담모양의 安山이 지네형의 鎮山을 먹지 못하도록 삼팽이(이리마을)와 개(亭子)를 配置하고 지내산에 人工造林을 하여 保護 *담과 지내사이에 느티나무 숲을 造成하여 視覺的으로 차폐 *지내의 먹이로 지렁이형의 연못을 造成 *마을 入口에 卵丘型의 朝山 및 松林 조성

자료 : 金漢培(1981), 문화경관적 상징성의 체계로 본 한국전통 마을의 경관구조, pp. 82-97에서 발췌 정리

Higuchi(Terry, 1983)가 'Home'을 人間이 生活를 통해 경험되는 空間이며 적절한 크기로서 친근감과 안락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듯이 農村自然部落의 綠地構造는 궁극적으로 部落民의 生活영역으로서 心理的 安定感을 부여하는 空間構造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2. 綠地의 解析

가. 綠地活動과 그 分布

部落의 空間構造를 형성하고 있는 自然의 綠地는



그것이 住民의 活動과 연루되면서 色다른 意味가 부여되게 되며 場所로서의 功能이 주어지게 된다. 綠地 活動이라 함은 屋外空間에서 行하여지는 活動을 말하는데 農村自然部落에서는 自然狀態의 綠地로부터 가장 人工的인 綠地에 이르기까지 多樣한 空間利用의 樣態를 보이며 폭넓은 屋外活動이 展開된다.

綠地에 수용되는 활동은 매우 多樣하지만 生産活動을 除外한다면 傳統的으로 休養娛樂의 活動과 共同集會活動이 그 主流를 형성하는 것으로 理解되고 있으며 이와같은 흐름은 綠地의 生産的機能이 排除된 現代의 都市의 住居空間에서는 더욱 뚜렷하다. 이와같은 側面에서 傳統農村自然部落의 綠地活動을 考察할 때 部落祭가 갖는 意味가 크게 浮刻된다. 이는 部落祭가 部落守護神에 바쳐지는 民間信仰의 祭儀(柳東植 1975, 李相日 외 6人 1973)로서 部落共同의 行事이며 綠地, 즉 屋外空間에서 펼쳐지는 祝祭的 性格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部落祭의 이와같은 의미는 韓國 部落祭의 原型이라고 判斷되는 굿놀이풍의 巫教的 共同祭儀로부터 찾을 수 있다.(제사만으로 끝나는 儒禮風의 것은 이조 후반기부터 시작된 것이라 보고 있다.(柳東植 1975)<表6> 地方에 따른 差異는 있으나 굿놀이풍의 部落祭는 '祭祀'와 '굿놀이'의 2段階 行事로 進行되는데 祭堂이나 神體(柳東植, 1975)에서 祭祀를 지내고, 굿놀이는 農樂이나 巫樂의 形態로 온 마을의 屋外空間을 회도는 場所의 特徵을 보인다.

<表 6> 部落祭의 類型

①	都堂굿(京畿道) 수신굿(慶尙道) 巫樂 別神굿(慶尙道) 端午굿(江原道) 堂굿(平安北道) 別神굿(忠淸道) 農樂 農樂(忠淸道) 農樂(全羅道) 地神밧기(慶尙道)	② 儒禮風型(靜肅型):(전국적) 부락에서 신출된 제관에 의한 제사 部落祭 1. 당산제형:(호남지방) 제관에 의한 유례풍의 제사와 농악에 의한 굿놀이의 혼합 굿놀이型 2. 별신굿형:(영남,충청지방) 제관에 의한 유례풍의 제사와 세용무에 의한 굿놀이의 혼합 3. 도당굿형:(중부지방) 강신무에 의한 굿놀이
---	---	---

①村山地順의 分類(굿놀이型) ②柳東植의 分類  
자료: 柳東植(1983), 韓國巫教的 歷史와 構造, pp. 242-243

즉 祭儀行列이 上堂→下堂→三神堂으로 내려와서 별신굿놀이를 한뒤 部落內의 각 집을 찾아 다니며 지신밧기를 하는 '河回'라든가 암堂→수堂→첩堂→장승을 거쳐 굿터에 돌아와 굿놀이를 하는 '성덕리', 각

마을의 샘(공동우물)에서 동시에 샘고사를 지내고 地神밧기를 하는 '중연리', 東西의 마을로 갈라져 각각의 공동우물과 장승에게 告祀를 지낸 다음 마을 중앙에 있는 堂마당에서 마주쳐 뒷놀이를 벌이는 '浦里'등과 같은 많은 事例가 그같은 양상을 立證하고 있다.(金漢培, 1981)

部落祭의 祭堂(또는 神體)은 堂집, 神木, 돌무더기, 石柱, 木刻 神像등으로서 이들이 단독으로, 또는 짝을 지어서 神體를 形成한다.(柳東植, 1975) 이 때 祭堂은 보통마을의 重要 要地에 位置하고(李載根, 1981) 城隍堂은 마을입구 길목에 있어서 부락민에게 心理的인 안도감을 주거나 마을의 領域을 設定하게 된다.(金烈圭, 1971)

이와 더불어 神體를 中心으로 部落의 聖域이 形成되는데 神木인 서낭나무(堂나무)는 單獨으로서 있을 때도 있으나 다른나무와 함께 숲을 이루어 그 全體가 聖域이 되기도 한다.(柳東植, 1975)

굿놀이의 性格으로 볼 때 部落祭는 분명 祝祭의 性向을 가짐으로써 住民들에게 레크레이션과 그 空間을 提供해 주는 동기 유발적 모티브가 되며, '굿'은 곧 '놀이'의 한 形態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호이징하가 祭儀를 '놀이'의 觀點에서 解析하고 있듯이(金潤洙, 1981) 部落祭는 이미 '놀이'와 상충되는 概念은 아닌 바(金烈圭, 1971), 李朝時代에 전승되어 내려오던 여러가지 민속놀이가 部落祭로 부터 起因되고 있음은 月曆行事로 行하여지던 불놀이, 줄다리기, 石戰, 城隍戲, 木牛戲, 籠馬戲등과 같은 각종의 鄉戰이나 崩산탈춤, 양주별산대놀이, 동래야유극, 통영오광대놀이, 꼭두각시놀음등과 같은 민속극에서도 느낄 수 있다.<表7> 神體(祭堂)으로부터 始作되어 部落 끝과 샘터, 공동

<表 7> 韓國의 歲時民俗놀이

시 기	놀	이
음력 정 초	웃놀이, 연날리기, 널뛰기, 杖치기놀이, 박시놀이, 풍어놀이(어촌)	
정월대보름	줄다리기, 사자놀음, 石戰, 車戰놀이,  숫다리 밧기, 모심기 놀음, 龍處놀이, 地神밧기(정월초사흘날~대보름), 다리밧기, 풍년밧기, 農期맞이,  교씨음놀이(정월초순→16→2월초하루)	
삼  쫓  날  봄, 가을	음력 3월 3일: 닭쌈놀이 활쏘기 대회	
4월 초파일	탐돌이	
오월 단오	음력 5월 5일: 씨름대회, 그네뛰기, 韓將軍놀이	
8월 한가위	탐돌이, 강강술래,  거북놀이	
선 달그믐	용마놀이	
기 타	농악: 정월대보름, 5월파종, 6월제초, 7월백중, 추석, 10월추수 윤달: 城돌기	

자료: 崔常壽, (1985), 韓國民俗놀이의 研究, 成文閣

마당, 텃밭과 家家戶戶의 마당으로까지 이어지는 部落祭(金漢培, 1981)와 함께 各種의 민속놀이는 들이나 밭, 산과 냇가, 모래밭등 部落內 모든 空間을 利用하여 펼쳐진다. 이와같은 現象은 작금의 놀이에서 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表8> 이 때의 空間利用은 대개 평상시의 土地利用이나 綠地機能에서 벗어나고 있어 農村自然部落의 外部空間利用方式이 매우 重複的이고 複合的인 特性을 지니고 있음을 示唆해 준다.

나. 主要 綠地空間의 解析

部落祭나 민속놀이등에 의해 폭넓게 이용되는 보편적인 綠地는 그곳에 또다시 휴식이라든가 集會등과 같은 綠地機能들이 추가되면서 제반 綠地機能이 응집된 특징적인 綠地施設로 空間的 變型이 이루어 진다.

“한국인들은 일반대중의 휴양을 위한 공원과 같은

장소에 대한 개념이 없다. 그러나 좋은 풍경을 찾아 언덕을 배회한다거나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 . 시골에서는 사찰이 공원과 같은 역할을 한다. . . 게다가 거의 모든 마을에는 큰 나무가 있어 그 밑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이야기한다. 이곳이 마을의 광장(Agora)이다. . . 마을의 사당을 일상적인 집회의 장소로 사용하는 경우도 드물지않다. “(Hulbert, 1969) 이것은 개화기에 우리나라에서 생활한 바 있는 Hulbert가 소위 綠地的 觀點에서 部落의 場所나 施設, 行態를 느낀대로 표현한 글로써 우리의 傳統的 綠地를 해석하는데 커다란 指標가 되고 있다.

傳統的으로 亭子가 兩班과 男性의 휴양시설로 설치되어 왔던 것과는 달리 女性이나 常民의 休養을 위한 별도의 공원, 즉 공공녹지시설의 흔적을 찾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西洋에서 公園의 원형을 자연성이 풍

<表 8> 農村自然部落의 綠地類型別 活動分佈

녹지 유형	부락 집단 활동	개 별 소 집 단 활 동	
		성 인	아 동
마당 ①동네공동마당, 마을 도로 회관앞 마당, 정자 나무 주변	농악놀이, 씨름, 동제사, 줄다리기, 체육대회, 계	웃놀이, 바둑, 장기, 농악, 씨름	삭치기, 자치기, 구슬치기, 딱지치기, 가이생, 그림자밟기, 팽이치기, 고무줄 놀이, 자전거타기, 못치기, 제기차기, 비석치기, 굴렁쇠 굴리기
②여장집 마당, 종가집 마당, 부갯집 마당	풍물대회(노래자랑), 마을잔치, 웃놀이	웃놀이, 그네뛰기, 널뛰기, 씨름	그네타기, 널뛰기, 씨름, 웃놀이
물가 ①시냇가, 개울, 하천		낚시, 수영	낚시, 수영, 물장구, 모래장난, 물고기 잡기, 가재잡기, 종이배 띄우기
②방죽, 소류지, 보, 연못, 못, 저수지, 웅덩이, 미나리밭		낚시, 수영, 스케이트	낚시, 수영, 썰매, 팽이치기, 개구리잡기
③약수터, 골짜기, 계곡		낚시, 목욕, 천렵	먹감기, 가재잡기, 개구리 잡기
④우물, 빨래터		식수, 빨래, 나물씻기	물걸기, 나물씻기, 빨래
산 ①큰바위, 바위산, 채석장	산제사	연날리기, 휴식, 대화	모험놀이, 햇불놀이(뽕우리), 미끄럼 타기, 바위타기, 세다리타기
②산등성이, 동산, 언덕	산제사, 미륵제사	연날리기, 휴식, 대화	잔디스키, 비행기 날리기, 연날리기, 햇불놀이, 말타기, 통나무타기, 깡통놀이
③마을 근처산		사냥, 토끼몰이, 동산, 킷뿌리 캐기	킷뿌리캐기, 타잔놀이, 나물캐기, 산딸기 따기, 사냥, 곤충채집
기타 ①고수부지, 논, 밭, 모래밭	줄다리기, 씨름, 체육대회	축구, 배구, 야구, 연날리기	축구, 배구, 야구, 깡통놀이, 쥐불놀이, 모래장난, 말뚝박기, 굴렁쇠 굴리기
②넓은 묘자리, 공동묘지		휴식, 대화	진돌이, 술래잡기, 산소 빼앗기, 닭쌈
③과수원	노래자랑	노래자랑	술래잡기, 눈싸움, 과일서리
④삼거리, 사거리, 장터			자전거 타기, 굴렁쇠 굴리기
⑤마을전체	지신밟기		

자료 : 청주대학교 조경학과 학생들에 의한 설문결과를 취합함

부한 'Park'로 부터 찾고 있듯이 우리나라에서도 自然의 場所에서 휴양적 욕구가 해결되고 있는 바, 그것을 '뒷동산'과 '시냇가'이며 이는 우리나라 농촌자연부락의 立地와 녹지구조에 부합되는 극히 대중적인 휴양의 장소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현대의 公園이 그 기초를 自然性에 두고 있는 반면 廣場은 매우 人工的인 公共의 集會休養의 場所이다. (Olmsted, Jr.F.L & T. Kimball [ed]. 1973) 마을의 큰 나무란 정자나무를 일컫는 것으로서 Hulbert는 이 나무와 주변의 공간, 즉 마을마당을 西洋의 廣場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정자나무란 亭子와 그 用途가 거의 같아서 그와같은 이름을 붙인 것이지만 둘의 성격은 사뭇 다르다. 즉 정자나무는 마을의 빈 터에 나무를 심어서 綠地化함으로써 '人工'속에 '自然'을 도입하고 있지만 亭子는 展望과 주변경관이 좋은 곳을 찾아 '自然'속에 '人工'을 삽입한 것이며 亭子와 달리 정자나무는 그 이용이 常民에게 開放되고 있는 것이다.

정자나무를 심는 전통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고대로 부터 지속되어온 部落祭의 서낭목이 정자나무의 기원일 수도 있다는 추측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현재 많은 부락에서 정자나무와 서낭목이 겸용되고 있거나 兩者에 대한 概念의 區分이 명확치 않다는 점으로 뒷받침 될 수 있을 것이다.

좋은 풍경을 찾아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은 擇里志의 '地理'에서 말하는 '山水'와 一致하며 이는 또한 山亭, 江亭, . . . 등과 같은 亭子의 立地의 特性과 脈을 함께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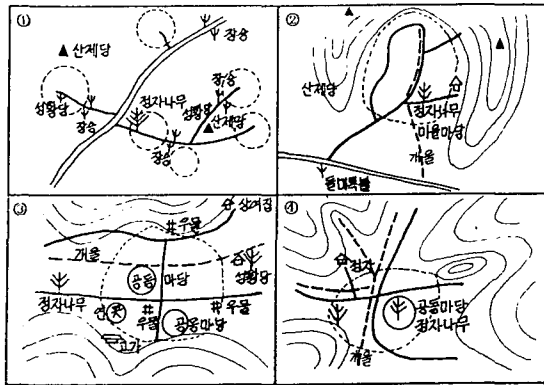
亭子와 정자나무가 男性만의 휴식, 집회공간이었다면 동네우물과 빨래터는 女性專用的 自然스런 共同集會場所로서 정자와 정자나무의 班次的 利用區分과 함께 社會的 階層構造나 儒敎的 男女有別의 傳統的 社會觀念이 綠地空間에 있어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알수있다.

姜(1986)은 전통농촌자연부락에서 발견되는 영조물을 信仰, 儀禮, 敎育, 休息, 生活附帶등의 類型으로 區分한다. <表9> 여기서 大部分의 施設은 部落의 公

<表 9> 部落 營造物의 位置와 機能

영조물의 구분	위	치	기능
신앙, 의례시설	서낭당 당나무 장승 보자리 사당 상여집 효자비 신도비	주거지 뒤 산기슭, 동구의 길 가장자리, 진입도로의 고갯마루. 주거지내로 진입하는 길이 끝나고 마을 안길이 시작되는 연계점. 동구의 서낭당 옆 마을로의 진입이 시작되는 곳. 주거지 바로위 지세좋고 풍치좋은 양지바른 곳. 종묘~문중내의 시조, 업향조의 묘자리가 위치한 부근. 비교적 마을에서 떨어진 높은 곳.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길가 산기슭. 열너비, 선정비; 동구 진입길. 마을 뒷동산 조상들의 묘자리 앞.	개개인의 기원, 마을의 안녕 당제의 매개체, 마을의 놀이마당 마을 경계표지, 벼보의 뜻 상징         조상의 공덕 기림
교육시설	서원 서당강당 精舍	동구밖 마을과 격리되는 지리적 위치가 양호한 곳. 중가에서 가까운 한적한 곳, 전망좋은 높은 지대 거주하는 집과 격리, 산천이 수려한 곳, 자연경관 차경	외부사람들의 마을진입억제 마을안 후손들의 교육 개인의 학문도야
휴식시설	정자 연못	마을 뒤 산기슭 바람의 흐름이 빨라지는 바람목(산골짜기) 바람이 잘 불고 조망이 양호한 산마루터기(영역이 큰 곳) 마을 내, 외부 중간 매개지역인 수구가 되는 지점	마을 안 사람들 개인의 수신 및 유희장 농번기에 휴식 및 식사, 아이들과 가족들의 쉬는 장소
생활부대시설	우물터 빨래터 목욕터 타작마당	주거지 내부의 길과 길이 분리, 교차하는 지점; 물과 길이 만나는 지점 물막이 측구, 낮은 둑, 가까운 도랑, 동구밖 개울가 주변에 녹음 및 바위등 자연지형물에 의해 은폐되는 개울가 사람의 통행로로 부터 비교적 떨어진 곳 마을마당; 주거지가 시작되는 지점	식수해결, 세대간의 근린관계 성립, 마을의 Land Mark

共의 性格을 지닌 것이며 또한 綠地施設이기도 하다. 이와같은 綠地施設은 部落의 定住樣態나 위치 해석등에 의해 각각의 場所性이 부여되면서 설치되고 있으며 그 형태가 대개 点的인 것이어서 주변의 面 혹은 線型的인 土地利用과는 확연히 구분된다.<그림4>



<그림 4> 部落 營造物의 배치 다이어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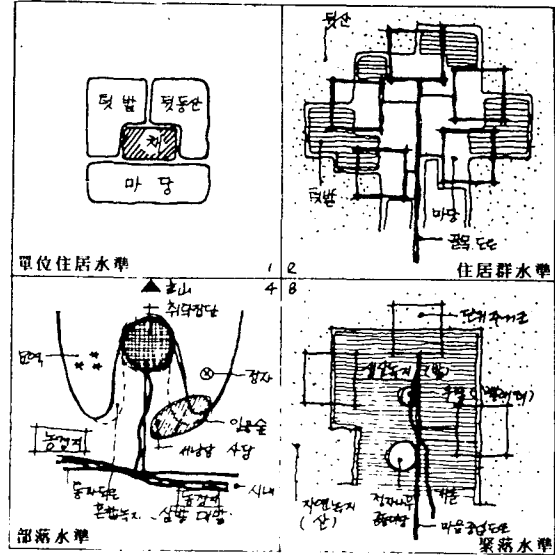
- ①엄 미 리 (광주군 중부면)
- ②괴실마을 (괴산군 청안면)
- ③무 룡 리 (중원군 살미면)
- ④화 성 리 (괴산군 연풍면)

결국 이와같은 綠地施設들은 部落의 空間綠地的 構造나 土地利用, 道路등의 定住體系를 바탕으로 하여 綠地體系를 구성하며 각시설의 형태, 부여된 기능이나 意味에 의하여 部落의 視覺的, 心理的, 그리고 行態的인 中心 (Focus, Center)이나 結節(Node)로서 認知되게 되는 것이다.

3. 綠地體系

綠地를 體系의 觀點으로 보고자 할 때는 대상의 가장 작은 單位空間에서 가장 큰 領域까지, 그리고 가장 人工的인 綠地에서 부터 가장 自然的인 綠地에 이르기까지 그 機能과 함께 綜合的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같은 接近方式은 Tankel에 의해 提案된바 있는데 都市의 住居地域을 대상으로 街路水準에서 地域水準에 이르기까지 각 段階別 綠地의 類型과 事例, 機能을 검토하고 있다.(玄重英, 1975)

촌자연부락에서는 가장 광역적인 수준을 '局'에 의한 '部落水準'으로 보고 그 以下 '聚落水準', '住居群水準', '單位住居水準'의 4段階로 나누어 體系構成因子들의 形態와 기능적 배분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그림 5>



<그림 5> 農村自然部落의 綠地體系

가. 單位住居水準

部落構成의 最小단위는 單位주택이다. 이 水準에서의 綠地는 住宅의 外部空間이며 마당과 채원, 果園, 동산등의 組合에 의해 構成된다. 마당은 건물에 부속된 편평한 땅으로서 놀이터, 운동장, 작업장, 휴식공간, 그리고 각종 행사 的 場所로 쓰여지는 곳이다. 따라서 마당에는 나무를 심는대거나 돌을 놓는 것과 같은 수식요소가 필요하지 않으며 오히려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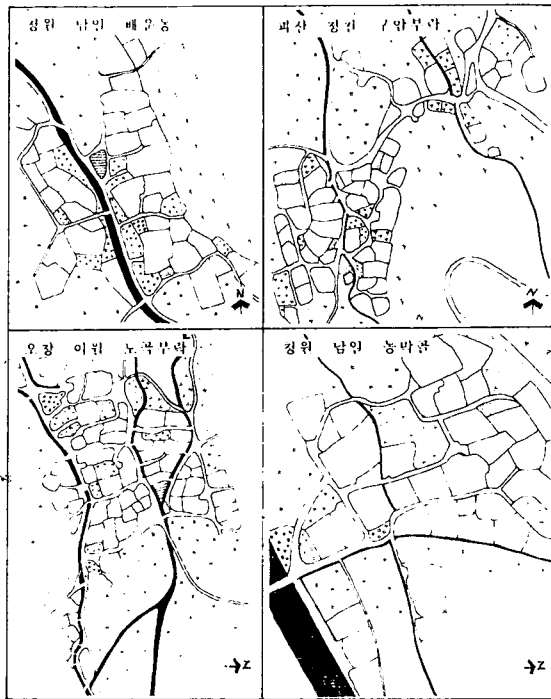
채원이나 과원은 일용의 부식을 조달하기 위한 耕作地로서 마당의 '場'의 개념과 확연히 구분되며 텃밭, 남새밭, 채마밭등의 명칭으로 불리운다. 부지가 제한되거나 주택의 규모가 작아지면 담장밖에 자리잡기도 하고 여유가 있으면 화단으로 할애되기도 하는 공간이다.

住宅의 立地與件에 따라서는 집 뒤켠의 경사진 동산이 담장안으로 까지 연결되기도 하는데 자연 그대로, 또는 段을 두거나 약간의 수식을 가하여 장식이나 휴식의 공간으로 사용하게된다. 근대화 的 過程에서 住宅의 外部空間을 '庭園', 즉 '뜰'과 '동산'으로 부르게 된 것은 주거공간의 축소에 따라 이같은 外部空間의 性格이 單一의 空間에 수렴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나. 住居群水準

單位住居가 모여 형성된 '住居群'에서는 線型綠地인 골목이 추가되어 單位주택을 연결하고 통합한다. 道路體系에서 고찰한 바 있는 分散 및 接近道路가 이 水

準에 屬하며 통과기능만을 맡는다. 住宅의 담장밖으로 자리잡은 채전이나 바깥마당등이 도로와 함께 住居群水準의 綠地이며 特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전이나 바깥마당의 소유와 이용은 지극히 個人的이다. 골목을 따라 이어지는 담장선에 의한 空間的 폐쇄감은 채전이나 바깥마당에 의해 부분적으로 열려지게 된다.<그림6>



범례: 바깥마당, 채 전, 공동 밭, 연못, 논, 산림, 대지

<그림 6> 住居群水準의 綠地

다. 聚落水準

單位住居群은 다시 部落의 中心道路에 의해 統合된 다. 또한 중심도로를 따라 흐르는 개울이 역시 線型的 綠地로 추가된다. 개울과 도로를 따라 빨래터와 공동 우물과 같은 点的인 綠地가 女性的의 共同作業空間으로 배치되어 뒷밭수준을 넘어선 밭(田)들이 각 住居群을 분할하기도 하고 지형의 굴곡을 따라 소구릉과 작은 계곡이 주거군 사이로 깊이 침투하기도 한다. 부락의 입구나 중심적인 위치에는 공동마당이나 정자나무가 있어 집회와 작업 및 휴식의 공간으로 사용된다. 中心道路는 住居群水準의 分散, 接近道路와는 달리 매우 公共的의 이어서 통과기능과 함께 '場'의 기능을 담당하

며, 点的인 綠地들이 이 道路를 매개체로 하여 연결, 統合된다.

라. 部落水準

部落水準의 綠地는 聚落과 함께 주변 自然綠地(산, 논, 밭, 개울등)를 包含하면서 部落의 空間構造에 接近하게 되는데 산과 들은 面적인 형태의 自然 또는 準自然의 綠地이다. 線型要素인 進入道路와 개울이 앞들의 通過道路, 시내(川)와 연결되고 亭子, 祠堂, 墓域, 서낭당등과 같은 点的인 綠地들이 그 面 위에 分散되어 배치되고 있다.

V. 結論 및 考察

人間은 천성적으로 自然에 대한 깊은 애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산업혁명이후의 都市化는 自然을 人間의 定住環境으로 부터 축출하는 결과를 유발하였고 그 정도는 이미 人間이 忍耐할 수 있는 限界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判斷된다. 따라서 기존의 定住環境이나 새로운 개발지역에 있어서는 人工 또는 自然의 綠地가 計劃에 의하여 적절히 삼입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어 되며 이 때에는 가장 合理的인 綠地패턴이나 機能配分에 關한 標準的인 樣式이 要求되는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대단위의 現代的 集合住居團地가 대량으로 건설되어 왔고 그때마다 가장 韓國人의 體質에 맞는 定住環境을 提供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아직도 만족할 만한 水準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특히 團地規模의 外部空間樣式에 있어서는 그 같은 경향이 더욱 뚜렷하다.

都市에서의 生活方式이 과거 農村의 그것에서 크게 變形되고 있으나 그 뿌리는 역시 傳統의 農村自然部落에 두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제반 定住因子의 原型을 그곳에서 찾아 보는 것도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農村自然部落은 그것의 立地는 물론 部落의 規模나 土地利用, 그리고 綠地와 單位住宅에 이르기까지 自然的인 성장에 의해 평형의 상태에 도달하고 있는 定住環境이다. 따라서 本 研究에서는 우리나라의 定住環境에 있어서의 綠地構成方式에 대한 標準的인 模型을 定立하기 위한 하나의 過程으로서 農村自然部落의 綠地體系를 定住體系에 바탕을 두고 분석 및 해석하고 있는 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特性들이 결론으로 提示될 수 있을 것이다.

① 部落의 規模는 60호 内外로서 상호근린관계가 형성되고 있으며 領域은 半徑 3~4km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日常生活이 解決되고 있다.

②立地選定에 있어서 風水의 局形은 뿌리깊게 選好 받고 있으며 局形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最小限 背山이나 自然으로 圍요(Enclose)된 형태가 部落立地로 選擇되고 있다.

③部落의 土地利用과 道路體系는 역시 風水의 局에 의한 基本地形과 生活方式에 의해 결정되고 있으며 통과도로→진입도로→중심도로→분산 및 접근도로의 段階的 秩序의 道路體系로써 형성된다.

④綠地는 基本的인 土地利用에 祭儀, 休息, 놀이 등의 行態가 중복되면서 廣域적으로 活用된다.

⑤部落全般을 통하여 分布된 多様な 点的 綠地에는 信仰, 祭禮, 휴식, 집회, 놀이등과 같은 강한 意味와 기능이 부여되고 있고 독특한 場所性이 드러난다.

⑥部落의 中心道路는 통과기능과 함께 綠地活動의 場所的 屬性을 지니고서 部落를 活性化시키며 다양한 綠地要素들을 통합하는 重要한 線型 綠地이다.

#### 參 考 文 獻

- 강선중(1986), 農村自然마을의 보편적 構造, 建築과 環境 21 : 21-28
- 高承濟(1977), 韓國村落社會史研究, 一志社 : 263-265
- 金烈圭(1971), 韓國民俗과 文學研究, 一潮閣 : 133, 166-181, 199, 236-237
- 金潤洙(1981) / J. 호이징하, 호모루덴스, 까치글방
- 金漢培(1981), 文化景觀의 象徵性的 體系로 본 韓國 傳統마을의 景觀構造, 서울대 環境大學院 석사학위논문 : 76, 82-97, 109-110
- 金鴻植(1975), 마을 空間構成方法에 대한 韓國 傳統建築思想研究, 大韓建築學會誌 19(64) : 46
- \_\_\_\_\_ (1984), 林園十六志의 相宅志를 중심으로 한 朝鮮後期(17C~19C) 建築計劃論에 대한 研究, 文化財 17호 : 25
- 문병집(1973), 韓國의 村落, 進明文化社 : 6, 24
- 魚得溶(1983), 農村自然部落의 變遷에 關한 調查研究 淸州大學校 大學院 석사학위논문 : 15
- 吳洪哲(1980), 취락지리학, 교학사 : 12, 14, 17-20, 140, 143, 241
- 柳東植(1975), 韓國 巫敎의 歷史와 構造, 연세대학교 출판부 : 16, 29-31, 165, 171-235, 239-243, 255
- 柳濟憲(1980), 農村景觀의 形態의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 1, 3
- 尹明老(1973) / H. Rickert, 文化科學과 自然科學, 三星文化文庫 : 52
- 李揆穆(1985) / Amos Rapoport, 住居形態와 文化, 悅話堂 : 102-103, 162-266
- 李相日 外 6人(1976), 韓國思想의 源泉, 博英社 : 236-237
- 李世鎬(1984), 自然部落의 空間構成에 關한 調查研究, 淸州大學校大學院 석사학위논문 : 41
- 李載根(1981), 民間信仰이 韓國 傳統마을의 造景要素에 미친 影響에 關한 研究, 서울대 環境大學院 석사학위논문 : 69
- 李翼成(1981) / 李重煥著, 擇里志, 을유문화사 : 162-266
- 李廷根(1972), 韓國自然部落의 空間構造,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89
- 朝鮮總督府(1934), 朝鮮의 聚落(前篇) : 45-47
- 朝鮮總督府(1934), 朝鮮의 聚落(後篇) : 217-218, 343-355
- 曹成基(1979), 農村自然部落의 集落形態에 關한 研究, 大韓建築學會誌 23(88) : 45, 48
- 崔基哲(1978) / C.S. Hicks, 人間, 自然, 文明, 삼성문화 문고 : 142
- 崔常壽(1985), 韓國民俗놀이의 研究, 成文閣
- 崔昌祚(1984), 韓國의 風水思想, 민음사 : 32, 151, 153, 252-255
- 玄重英(1974), 오픈 스페이스의 概念과 構造에 關한 研究, 서울대학교 環境大學院 석사학위논문 : 49-52
- 洪慶姬(1985), 村落地理學, 法文社 : 335
- Hulbert, H. B.(1969), The Passing of Korea, reprinted by Yonesei Univ. Press : 248-250
- Laurie, Michael(1975), An Introduction to Landscape Architecture, American Elsevier Publishing Co. : 2
- Olmsted, Jr. F. L. & T. Kimball[ed](1973), Forty Years of Landscape Architecture : Central Park, MIT Press : 3-4
- Terry, Charles translation(1983), Tadahiko Higuchi, The Visual and Spatial Structure of Landscapes, MIT Press